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나와는 먼 단어처럼 느껴졌다. 가끔 뉴스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뿐, 정상적이지 않은 나쁜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저지르는 빈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 속 누군가의 사진이 너무나도 쉽게 저장되고, 너무 쉽게 공유되고, 또 아무렇지 않게 타인에게 평가받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올리고, 그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다.

나도 하루에도 여러번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존중이, 이제는 작은 화면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특별한 일들이 아니다. 어쩌면 “장난인데 뭐 어때”,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같은 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요구하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

**양성평등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온라인에서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몸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구경거리처럼 여기지 않는 것, 동의받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행동,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자세. 이런 태도들이 모여 더 안전한 문화를 만들 것이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는 무심코 누른 저장 버튼 하나, 재미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토록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사진을 올려도 괜찮을까. 이 말을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받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되는 걸까. 잠깐이면 되는 생각이지만, 그 잠깐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예방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불쾌한 단어나 문장을 누군가 무심코 올렸을 때 그냥 웃고 넘기지 않는 것. 허락 없는 사진 공유를 봤을 때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왜 그랬어?”, “괜찮아?” 라는 물음보다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실천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침묵이 더 큰 외로움으로 남을 수 있다. 잘못된 말과 행동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춰 서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 한다. 친구 사진은 동의받지 않고 허락 없이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싫다고 하면 그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 자신에게는 장난이어도 상대가 불편하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 이런 말은 평소에 자주 들려주고,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태도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 다른 사람의 사진과 사생활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자란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남기는 기록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더 빠른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화면 너머에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저장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타인의 것을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어쩌면 그 마음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가장 처음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게 된다. **이 안에도 누군가의 하루가 있고, 마음이 있고, 지켜져야 할 인생이 있다고.** 양성평등은 어렵고 큰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 불편한 말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피해자의 편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존중은 가장 쉽고 작은 예방이다. 그리고 그 작은 예방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